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채용 공고 계속 안정...최근 둔화 추세 일축
- WSJ: 9월 금리 인하 관련 이번 주 연준 발표에 투자자들 촉각
- Bloomberg: 골드만삭스 CEO, “올해 한두 차례 금리 인하”로 입장 바뀌

#### [미국 금융]

- Bloomberg: 역사적으로 보면 FOMC 회의 때마다 채권과 증시는 모두 강세

#### [뉴욕시]

- Bloomberg: 뉴욕시 교통 시스템 개보수에 51억8천만불 이상 소요

#### [미국 생활]

- CNBC: 교통 시간대를 보면 10시부터 4시까지 유연 근무로 바뀌어

#### [무역]

- WSJ: LA 항만청 전력공급 차질로 청정 전력 계획에 차질
- Bloomberg: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통해 한국의 반도체 수급 안정화

#### [원유]

- CNBC: 미 원유 선물, 76불 아래로 하락... 6월 초 이래 최저

#### [부동산]

- Bloomberg: 주택 가격 상승세 지속... 공급 부족 탓
- Bloomberg: 한국 투자자들의 미 오피스 건물 대규모 투자로 손실 이어져

####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CNBC: 미 항공사들, 수익성 악화로 인해 성장 계획 축소
- WSJ: 아마존, 외딴지역에 빠른 배송 도입하여 USPS에 도전장 내밀어
- Bloomberg: 제트블루, 신임 CEO의 개편계획으로 비용 절감 강화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 [미국 경제]

#### **Bloomberg: US Job Openings Hold Steady, Defying Recent Slowdown Tre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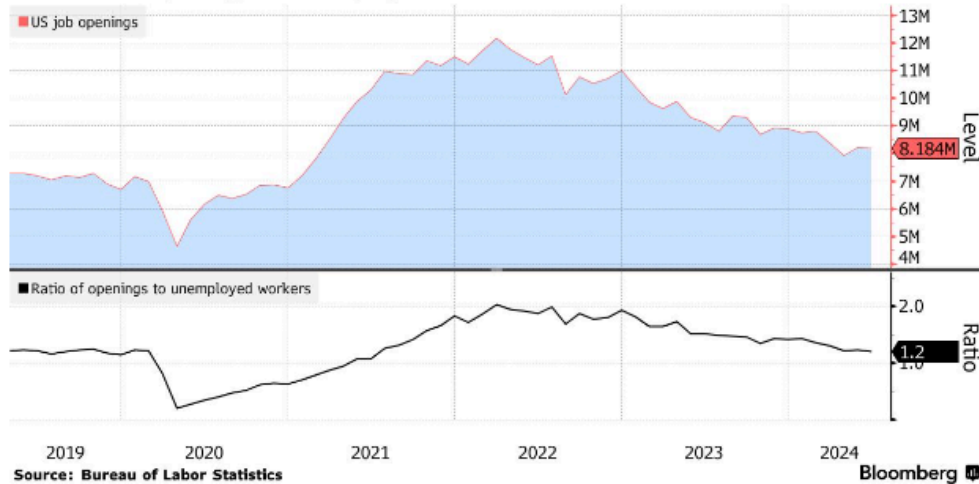
#### **미 일자리 공고 계속 안정...최근 둔화 추세 일축**

- 6월 미 일자리 공고가 예상보다 높게 나와 최근 노동시장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추세를 일축했다. 5월에는 상향 조정됐는데 6월 들어서는 예상치

보다 높게 나온 것. 물론 5월 보다는 약간 감소했다.

- 연방 노동국에 따르면 지난달에 취업이 가능한 일자리는 8백18만개로 5월의 상향 조정된 8백23만개보다 감소했다. 이 6월 수치는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치를 초과한 것이다.
-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주들이 고용을 줄이고 임금 상승도 둔화되었지만 구인 수요는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보인다. 6월 실업률은 3개월 연속 상승해 실업청구 건수는 증가한 셈이다.
- 인플레이 둔화와 함께 이같은 둔화 수치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은 예상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번 주 금요일에 7월 고용 보고서가 나오면서 일자리 상승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US Job Openings Were Higher Than Expected in June**  
 The ratio of openings to unemployed workers held at 1.2



Bloomberg 기사

**WSJ: Investors on Alert for Fed Signals of September Rate Cut**  
 9월 금리 인하 관련 이번 주 연준 발표에 투자자들 촉각

-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부터 9월까지 인플레이 물가 지표가 계속 개선된다면 이번 주 수요일 연준의 발표 성명서나 파월 의장의 성명서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고 시사하거나 언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실제 인플레이는 낮아지고 있다. 특히 주택 시장과 저소득층 소비 둔화로 경제가 예상보다 둔화되고 있다.
- 그러나 7월에 금리 인하를 결정하지 않은 것은 인플레이가 2% 목표를 계속 내려온다는 완전한 신뢰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 9월 첫 금리 인하 후에는 연준은 대략 분기 당 한차례씩 0.25%를 내릴 것이라는 점을 작년 이래 연준의 분기별 경제 전망치는 반영하고 있다.

## WSJ 기사

**Bloomberg: Solomon Sees Up to Two Fed Cuts in 2024, Reversing Hold Stance****골드만삭스 CEO, “올해 한두 차례 금리 인하”로 입장 바뀌**

- 골드만삭스의 CEO인 David Solomon은 두 달 전만 해도 올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입장을 바꾸어 올해 한번 또는 두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인플레이의 누적된 여파가 소비 행태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경제의 경로가 여전히 불확실하다”면서 금리 방향과 정책 방향을 확신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Bloomberg: History Favors Stock and Bond Bulls Alike When the FOMC Meets****역사적으로 보면 FOMC 회의 때마다 채권과 증시는 모두 강세**

- 씨티 그룹에 따르면 작년 이래 연준 회의가 8번 열린 주간에 6번은 주식과 채권이 상승세를 보였다.
- 내일 연준이 FOMC 회의를 끝내는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 국채와 S&P 500은 상승세로 마감했다.
- 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 사이클을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미 국채 시장은 지난 3년간 최장기간인 3개월째 매월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씨티 그룹에 따르면 파월 의장이 예상보다 더 비둘기적인 발언을 내놓으면 연준이 회의하는 주에 금융 여건이 완화되었다는 것이다.

### Stocks, Bonds Tend to Rally Around Fed Meetings

Weekly moves during the FOMC week

Fed Date	10y Yield Change (bps)	SPX Change
6/12/24	-21	1.6%
5/1/24	-16	0.5%
3/20/24	-11	2.3%
1/31/24	-12	1.4%
12/13/23	-31	2.5%
11/1/23	-26	5.9%
9/20/23	10	-2.9%
7/26/23	12	1.0%
<b>Average</b>	<b>-12</b>	<b>1.5%</b>

Source: Bloomberg

Bloomberg 기사

#### [뉴욕시]

### Bloomberg: NY's MTA Outlines List of Improvements to Exceed \$51.5 Billion

#### 뉴욕시 교통 시스템 개보수에 51억8천만불 이상 소요

- 메트로폴리탄 공사는 지하철과 버스, 기차 노선의 개보수를 위한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내역을 검토 중이다. 노후된 시스템을 교체하거나 개보수 하기 위해서는 2천개의 새로운 지하철이 필요하고 60마일의 전철 선로를 새로 깔아야 하며, 전력 시설을 대체해야 하는 상황이다.
- MTA는 올해 10월까지 뉴욕주 의회에 예산 방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주의회는 내년까지는 자원 제공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 교통 시스템은 1백년이 넘는 노후 상태에 있다.

Bloomberg 기사

#### [미국 생활]

### CNBC: Rush hour isn't what it used to be: Working 10-to-4 is the new 9-to-5, traffic data shows

#### 교통 시간대를 보면 10시부터 4시까지 유연 근무로 바뀌어

- 지난 6월에 관련 교통 시간대 조사 결과인 INRIX의 2023 Global Traffic Scorecard에 따르면 많은 통근자의 근무 시간이 유연한 근무 시간을 통해 전통적인 9시부터 5시까지의 패턴에서 10시부터 4시까지의 패턴으로 바뀌고 있다.

- 즉, 이번 분석에 따르면 오전 출근 시간은 줄어들고 팬데믹 이전 교통 시간 대와는 달리 낮 시간대 출퇴근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 한마디로 출퇴근의 새로운 현상은 아침과 저녁의 출퇴근이 줄어들고 오후에 퇴근 교통량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CNBC 기사

**[무역]**

### **WSJ: The Port of Los Angeles Has a Power Problem** **LA 항만청 전력 공급 차질로 청정 전력 계획에 차질**

- 항만청의 컨테이너들을 다루는 민간 기업들에 따르면 컨테이너 터미널의 전력망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불안정한 전력 공급으로 인해 크레인과 화물 장비들이 가동 되지 않고 있다.
- 당초 이 항만청의 목표는 오는 2039년까지 단계적으로 관련 디젤 기계들을 교체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전력 공급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관련 투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로 배출 항만청 시대가 도래하기는 힘든 상황으로 보고 있다.
- 올해만 해도 적어도 9개의 전력 관련 중단으로 여러 개의 터미널 가동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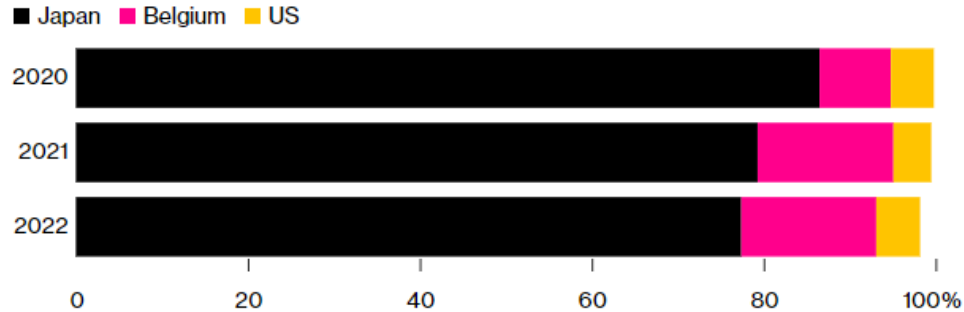
WSJ 기사

### **Bloomberg: South Korean Lead in US Trade Pact May Help Limit Chip Spats**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통해 한국의 반도체 수급 안정화**

- 미국이 주도하는 이른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서 한국은 적극적인 역할을 함에 따라 일본과의 과거 무역 갈등 리스크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 다자 협정은 14개 국가들이 참가하여 핵심 공급품에 대한 협력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로 인해 한국과 일본과의 수년 전 무역 갈등 리스크가 해소되리라는 것.
- 지난 2019년에 일본이 반도체 자재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실시해서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작년에 이 문제가 정상회담을 통해 해소되었지만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다자국 협정을 통해 일본이 일방적으로 수출 통제를 할 경우 협력 정신에 위반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각 국가들은 공급망에 영향을 주는 불필요한 장벽을 최소화 해야 한다.

## Reliant on Japan for Key Chipmaking Material

Korea relies heavily on Japan for photoresist used in printing chip patterns



Sourc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Note: Share of imports from each country

Bloomberg 기사

### [원유]

#### CNBC: U.S. crude oil falls below \$76 per barrel, lowest level since early June

미 원유 선물, 76불 아래로 하락... 6월 초 이래 최저

- 화요일 미 원유 선물은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로 인해 6월 초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 오일 브로커 PVM의 애널리스트 타마스 바르가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거시 경제적 요인에 의해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의 경제적 혼란, 특히 성장 둔화와 원유 수입 감소가 현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서부 텍사스 중질유(WTI) 9월물은 0.82% 하락한 배럴당 75.19달러를 기록했으며, 올해 들어 미 원유는 4.9% 상승했다.
- 브렌트유 9월물은 0.9% 하락한 배럴당 79.03달러를 기록했으며, 올해 들어 글로벌 벤치마크유는 2.6% 상승했다.

CNBC 기사

### [부동산]

#### Bloomberg: Home Prices in US Increase With Tight Supply Driving Up Costs

주택 가격 상승세 지속... 공급 부족 탓

- 미국의 주택 가격은 5월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S&P CoreLogic Case-Shiller의 데이터에 따르면 전국 주택 가격 지수는 전년 대비 5.9% 상승했

다. 이는 4월의 6.4%보다는 소폭 둔화된 수치이다.

- 이 상승세는 특히 2023년의 시장 상황과 관련이 있다. S&P Dow Jones Indices의 상품, 실물 및 디지털 자산 책임자인 Brian Luke는 공급이 수요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6월에 기존 주택 리스팅이 2020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이전의 상황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팬데믹 이전 수준을 밀도는 재고 부족으로 인해 가격 상승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 Bloomberg 기사

## Bloomberg: Risky Bet on US Office Towers Becomes Debacle in South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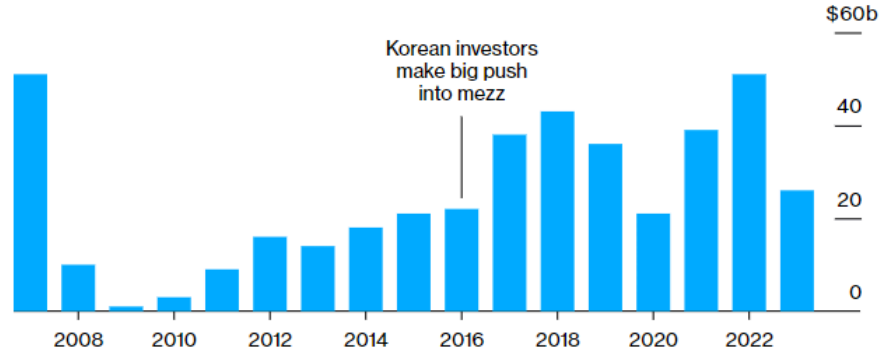
### 한국 투자자들의 미 오피스 건물 대규모 투자로 손실 이어져

- 한국 투자자들은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뉴욕부터 로스앤젤레스까지 다양한 지역의 오피스 건물에 위험성이 높은 대출을 받는 등 과감한 투자를 했다.
- 그러나 현재 높은 대출 금리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이러한 리스크가 심한 부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큰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
- 예를 들어, IGIS 자산운용은 1551 브로드웨이 건물에 후순위채권(subordinated debt)을 제공했지만, 손실을 줄이기 위해 큰 폭의 할인율로 매각을 결정했다. 로스앤젤레스의 가스 컴퍼니 타워에 투자한 메리츠 대체투자 운용도 건물주의 채무 불이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이 상황은 금리가 낮고 시장이 호황이던 시기에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진입한 한국 투자자들에게 큰 변화를 의미한다. 맨해튼의 280 파크 애비뉴와 같이 실적이 좋은 건물이라도 부채를 상환하는 비용이 매우 높으며, SL 그린 리얼티와 본 나도 리얼티 트러스트의 280 파크 애비뉴에 대한 메자닌 융자(mezzanine loan)을 주도한 현대투자회사는 올해 초 해당 채권을 약 50% 할인된 가격에 매각했다.

## Riskier Property Lending Proved Alluring to Korean Investors

Total origination of seconds, mezzanine and preferred equity

■ Dollar Volume



Source: CBRE Group and Mortgage Bankers Association

Bloomberg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CNBC: U.S. airlines cut growth plans in a bid to stem profit-eating fare discounts

##### 미 항공사들, 수익성 악화로 인해 성장 계획 축소

- 여름철 여행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과잉 공급된 국내 시장으로 인해 운임이 낮아지고 수익이 감소하자, 미 항공사들은 연말까지 운항 편수를 줄이기로 결정했다. 이는 승객들에게 항공권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 최근 미국 항공사들은 주간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의 운항 편수를 줄였으며, 4분기 계획 용량을 약 1% 감소시켰다. 항공사들은 연말까지 연간 약 4%의 운항 증가를 예상하고 있지만, 도이체방크의 항공 분석가 마이클 리넨 버그는 항공사들이 앞으로 몇 주 안에 추가적인 감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 항공사 경영진들은 강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에 항공편이 너무 많아 성장 계획을 철회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는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신 인플레이 보고서에 따르면 6월 항공료는 전년 동월 대비 5.1%, 5월 대비 5.7% 하락했다.

CNBC 기사

#### WSJ: Amazon Pushes Fast Delivery Into Rural Areas in Challenge to Post Office

##### 아마존, 외딴지역에 빠른 배송 도입하여 USPS에 도전장 내밀어

- 아마존이 미국의 외딴 지역까지 배송 범위를 확장해 교외 지역 고객에게 더 빠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미국 내에서 가장 빠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 아마존은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전국적으로 하루에서 이틀 내에 배송이 가능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수년간 미국의 밀집 지역에서 물류 시스템을 최적화한 후, 이제 농촌 지역까지 공략할 준비가 된 것이다.
-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전략을 통해 소도시에 거주하는 고객들은 아마존의 패키지를 더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USPS가 처리하는 배송 건수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WSJ 기사

### **Bloomberg: JetBlue Deepens Cost Cuts in New CEO's Turnaround Plan** **제트블루, 신임 CEO의 개편 계획으로 비용 절감 강화**

- 제트블루 항공은 새로운 CEO의 주도 하에 수익성 회복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2029년까지 30억 달러에 달하는 신규 항공기 투자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 제트블루는 서비스 종료 도시를 15곳으로 늘리고, 50개 이상의 노선을 축소해 수익성이 낮은 운항을 줄였다. 또한, 에어버스와의 납품 일정을 재협상하여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인도될 예정이었던 44대의 A321 네오 항공기의 인도를 2030년 이후로 늦추었다.
- 이번 조치는 파트너십 해체로 인한 비용 증가, 성장 전망 감소에 직면한 상황에서 CEO 조안나 게라그티가 세전 수입을 9억 달러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Bloomberg 기사

### **'금리 내려갈 일만 남았네'...美 채권 펀드에 역대급 '몽칫돈'**

**미 상장 채권형 ETF에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207조원 순유입**  
**"연준 금리인하 앞둔 시점,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 평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 확실시되면서 채권 펀드에 큰돈이 몰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에 상장된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에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거의 1천500억 달러(약 207조7천800억원)의 자금이 들어왔다고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7개월간 순유입된 자금 규모로는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된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